

목회의 프락



이동균 목사
혜성교회 담임

봄이 얼굴에 닿는다. 추위가 물러가고 계곡의 물 소리는 더 크게 들린다. 소나무의 푸른빛이 짙어지고 매화향도 바람에 실려 코에 닿는다. 복수초는 언 땅을 밀고 올라와 노란 등불을 켜고 눈을 자극한다. 잎이 없는 활엽수들도 분주해진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먼저 뚫어붙이며 꽃을 피우고 잎을 낼 준비를 서두를 것이다. 개구리들도 긴 잠에서 깨어 일어난다. 덩달아 사람의 걸음도 빨라진다. 봄은 이렇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시작되고 있다.

교회는 지금 사순절의 시간이다. 부활절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40일의 신앙 여정이다. 이 기간 우리는 다시 신앙과 기도생활을 회복하고, 삶을 절제하며, 나의 길을 돌아 본다.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 삶이 있다면 돌이켜 하나님의 길로 다시 서는 생명의 시간이다.

생명을 준비하는 계절, 사순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배고픔의 시험과 명예와 권력의 유혹을 견디며 이겨내셨다. 그 시간은 패배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이었다. 나무들이 겨울을 지나야 하는 것과 같다. 잎이 떨어지고 찬바람에 노출되었다고 실패한 시간이 아니다. 봄의 시간표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매화가 향기를 준비하고, 복수초가 언 땅을 녹이며, 벚꽃이 만개할 날을 카운트 다운하고 있다. 겨울의 시간은 새 생명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사순절은 우리 신앙의 넓이와 깊이를 더하는 시간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에 더 깊이 들기 위해 기도한다.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나의 삶을 점검한다. 베드모가 닳아 우는 소리를 듣고 뒤늦게 후회하고 뉘우쳤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계절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담이 운 후에 서 있는 사순절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먼저 말을 줄여 보자. 휴대전화와 SNS가 넘쳐나는 시대이다. 해야 할 말보다 혼란이나 미혹을 더하는 말들이 많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디지털 금식'이라 부르며 사순절 동안 디지털 활동을 줄이고 고난주간에는 더 절제한다. 중학교 신입생인 지누도 디지털 기기를 자진 반납하며 학습에 집중한다고 했다. 말을 줄이고 귀를 열어 보자.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는 건강한 시각을 가져보자.

삶의 속도도 잠시 늦추어 보자.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간다. 빠르게, 부지런히, 밤낮없이 달려왔다. 어둡다고 촛불을 양초의 양쪽에서 동시에 태울 수는 없다.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계곡의 물소리를 가만히 듣거나 새순이 돋는 나무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말씀 한 구절이라도 깊이 읽어 보자. 빠른 시대 일수록 잠시 멈추는 시간이 필요하다. 살아온 길의

옆이나 뒤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금식과 절제도 사순절의 중요한 덕목이다. 금식은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전통이다. 보이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 내면의 금식이다.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공인을 받으신 후 광야에서 금식하셨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준비였다. 우리도 말과 소비, 관계와 생활을 돌아보며 절제의 삶을 실천할 수 있다.

사순절은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다. 사람은 거미줄 같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은 쉽지 않지만 신앙의 주요한 과제이다.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전화를 해보자. 나를 위해 상대를 용서해 보자. 용서는 결국 나를 자유롭게 하는 일이다. 생각이 달라 소원 해졌던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자. 외로운 이들의 말벗이 되어 주는 일도 그리스도인의 전통적인 실천의 삶이었다.

나눔도 사순절의 중요한 실천이다. 초대교회부터 사순절에는 구제와 나눔이 있었다. 작은 기부라도 해보자. 소외된 이들이 웃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다. 봉사나 손길을 기다리는 곳이 많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삼으로 나누는 일이다. 배고픈 이를 찾아 밥 한 끼를 나누는 일도 의미 있는 일이다.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반가운 말은 "같이 밥먹으러 가자"는 말이 복음이다. 또 하나는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이다. 우리는 환경 위기와 기후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다. 창조물들이 신음하고 있다. 물과 흙,

공기가 오염되고 생태계가 변하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시급하다.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며 에너지를 절약하는 일이다. 나무를 심고 자연을 보호하는 일도 창조 세계를 돌보는 신앙의 실천이다. 성경은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말한다.

사순절은 거창한 종교 행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작은 실천이면 충분하다. 말을 조금 줄이고, 잠시 멈추어 기도하고, 한 사람을 더 이해하고,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삶이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일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다시 방향을 돌리는 마음이다. 봄의 나무들도 그렇게 살아간다. 겨울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뿌리는 쉬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의 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래서 어느 날 매화가 향기를 내고 복수초가 눈 속에서 피어나며 벚꽃이 하늘을 가득 채운다. 사순절의 시간도 이와 같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돌아보고 마음을 붙잡고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다. 겉으로 화려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속에서 믿음의 뿌리가 다시 자라고 있다.

머지않아 부활절의 아침이 온다. 겨울을 견디던 나무들이 꽃을 피우듯이 사순절을 지나온 신앙은 새로운 생명의 기쁨을 맞이하게 된다. 사순절의 준비, 고난주간의 고통 없이 부활은 없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 실천 없는 영광은 없다. 사순절은 실천의 시간이다. 복음을 귀로 받고 손발로 실행해야 한다. 실천이 사라진 복음의 삶은 없다. 개인의 신앙생활도 교회의 복음운동도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실천이 뒤 따야 한다. 축소되어가는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도 복음과 삶, 신앙과 실천이 있을 때 가능하다. 사순절은 슬픔의 계절이 아니라 생명을 준비하는 은혜의 계절이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주의 추천도서



[출판사 서평]

말하고 의지하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의 막내아들》의 저자인 여진구 대표(규장출판사와 갓피플 대표)는 실제로도 고 여운학 장로(이슬비전도학교, 303비전성경암송학교 설립)의 5형제 중 막내아들이다. 책은 절절한 시절, 가슴을 감행한 그 막내의 이야기로 시작해, 모태신앙 40년 만에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린 후의 놀라운 변화와 그 열매를 담백한 필치로 세밀하게 기록했다.

특히 세상 염려에 놀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성경에 모든 것을 맡기는 기쁨과 환희에 대한 생생한 증언으로서의 삶을 보여준다. 또 자신을 '하나님의 막내아들'로 정의하며, 이 정체성을

하나님의 막내아들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무는 인생

"아빠, 저 왔어요
저 많이 보고 싶으셨죠?"
하나님을 '이용'하던 인생에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인생으로 마른 뼈 같은 삶에 불어온 성령의 바람, 그리고 시작된 역전 드라마!
규장·갓피플 대표, 유튜브 롬팔이팔·주마중 진행자 여진구 대표가 전하는 '하나님 우선주의'(God first) 삶.

활할 때 진정한 자유를 맛보았다고 고백한다. 이 책은 우리는 존재만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언제든 참 좋은 아버지께 달려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임을 세상에 선포하라는 주의 명령에 대한 그의 순종이다. 요즘은 유튜브 '롬팔이팔'(로마서 8장 28절), '주마중'(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을 진행하며 크리스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다. 14만여 명에 달하는 구독자와 매일 주님의 마음을 나누며 소통하고 있다.

[저자의 말]

이 책을 통해 꼭 전하고 싶었던 진심성령님께 통치권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성령님을 만나기 전,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었다. 하지만 내가 계획하며 고군분투한 끝에 남은 것은 스트레스와 걱정, 분노와 좌절뿐이었다. 그러다 성령님을 깊이 만나 인생의 운전대를 그분께 넘겨드린 순간부터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스트레스가 있던 자리에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기대, 환희가 차올랐다. 내가 주인이 아닌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이 얼마나 즐거운지, 나는 이 책을 통해 그 생생한 증언이 되고 싶었다. '하나님의 막내아들'이라는 정체성,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막내아들'로 정의한다. 여기서 '막내'는 순서상의 끝자라 아니다. 그저 존재만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아빠 품이라면 언제든 달려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다. 이 책을 읽는 당신이 "나도 하나님의 막내아!"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행기' 삶을 살길 바란다.

책읽기 살리기



조정환지음/
규장출판

우리에게는 새로운 해를 시작할 기회가 두 번 주어진다. 신정과 설로 나누는 양력과 음력의 새해 맞이다. 두 가지 다 새해를 맞이했으니 이제는 본격적인 한해의 길을 걸어야 할 순간을 맞이한 것이다.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2026년을 계획하고 준비한 모습으로 알차게 살아가야 하는 첫 걸음을 우리는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한해를 마감할 때쯤 후회와 아쉬움이 남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아무지 않게 걸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늘 부족한 것이 많은 우리의 출발에 큰 힘이 되어줄 책 한권을 소개하고자 한다.

“웨이메이커 : 길을 여신 하나님”은 평촌드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조정환 목사의 책이다. 저자는 한국성서대학교에서 성서학(B.A.)을, 총신

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M.Div.)을 전공했으며, 2014년부터 분당우리교회에서 사역했다. 2022년, 분당우리교회의 '일만성도 파송운동'을 통해 평촌드림교회를 분립 개척하여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이 책은 어느 날 갑자기 분립 개척교회 예비 담임목사라는 새로운 부르심이 떨어졌다. 선택받았다는 기쁨보다는 막막함과 두려움이 가득 물려왔다. 이제껏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위에 홀로 던져진 아이 같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그 막막함 한가운데로 하나님이

하시게 뜻이라면 두려움 없이 달려갈 수 있는 기준이 우리에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란다.”는 것이다. 새로운 도전과 미지의 환경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마련이다. 마치 창세기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고향땅을 떠나는 모습에서와 같이 익숙한 환경을 내려놓고 고난과 도전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저자는 분립 개척의 과정에서 몸소 경험하게 된다. 예배를 드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를 찾아갔지만, 처음에는

저의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지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책을 덮으며 한국 교회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는 모습으로 새롭게 일어나서지 아니면 인간적인 계산과 계획 속에 무너져버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다. 세상과는 다른 선택의 기준과 가치관이 필요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선택하기가 너무나 힘든 시기이기도 하다.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요셉의 믿음이 그들의 길을 여는 열쇠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며 올 한해의 삶 속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웨이메이커 : 길을 여신 하나님

길을 내셨다. 개척을 불과 40여 일 앞둔 때까지 아직 예배드릴 장소조차 확정되지 않았지만, 여전한 신뢰로 하나님만을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그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친히 중히 여기며 아무지 않게 걸어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늘 부족한 것이 많은 우리의 출발에 큰 힘이 되어줄 책 한권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책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은혜의 기쁨이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따르려 하는 저자의 '하나님 은혜 추종기'다.

책을 보면서 인상 깊게 다가온 구절을 하나 인용한다면 "무엇을 받기 원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

이상한 목사로 오해를 받아 문전박대 아닌 박대를 받은 경험은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지 못한 목회자들에게 대한 교회 스스로 자기 반성의 시간이 되기도 하였다. 내 계산으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은 상황속에서 책의 제목처럼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고백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로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아픔과 상처를 통해 바다에 소멸시키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나아가자"는 저



김병모
한국성서대학교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2026학년도 총회신학 신·편입생 모집

본 총회신학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인준 정통 보수주의 신학연구원입니다. 청교도적 개혁주의 보수신학의 요망으로서 신학과정을 이수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강의를 중심으로 말씀의 기초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여러분의 사역에 성실한 길잡이가 되도록 본 총회신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전화
062)511-2491
010-3161-2491
http://www.gchongsin.com

과정	모집학과	학제	모집인원	자격
신학부	신학과 (주말반, 야간)	8학기	30명	고졸, 세례받은 자 전문대졸자는 3학년 편입가능
	목회학과 (주말반, 야간)	8학기	20명	세례받은 자, 평신도, 사명자
신학연구원	신학과 (주말반, 야간)	6학기	00명	신학부 졸업 및 졸업 예정자 동등학력 소지자
	목회학과 (주말반, 야간)	6학기	00명	
학술원	성경성서과정	2년	00명	목회자, 신대원 졸업자
평신도 성경연구반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체계화함, 4학기(1년) 평신도 지도자 과정 후 신학 과정에 편입할 수 있음			
특전	신대원 졸업자는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에 편입 가능 여유제도 있음			

원서교부 및 접수처
원서교부 : 광주, 전주, 순천 총회신학
원서접수 : 수시 접수
*전형료는 없음

총회신학의 장점
최고의 교수진이 있습니다.
남·여 목사안수 / 각종 장학혜택
교회개혁 및 설립인허, 법인등록 등
각종 행정자원을 하고 있습니다.

입학문의
광주 062)511-2491
전주 063)272-2491
순천 061)751-2491
수양관(곡성) 061)362-2491